

축 산 정 보

정부, 위생·방역관리 우수 종돈장 인증제 시행

정부는 지난 8월 27일 종돈장의 위생·방역상태에 따라 종돈장의 등급을 2단계로 인증해 주는 위생·방역 우수종돈장 인증 요령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우수 종돈장 인증대상은 종돈업 등록을 마친 종돈장으로 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 인증요령에서 정한 전염병 검사대상 전염병중 돼지 오제스키병을 포함하여 5종 이상의 전염병이 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1년간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단 검사대상 전염병중 돼지 오제스키병 발생사실이 있는 경우 우수종돈장 인증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염병 검사항목은 돼지오제스키병, 위축성 비염, 돼지 부루세라병, 돼지적리, 톡소플라즈마병, 유행성 폐렴 및 돼지 옴 등 7종이다.

종돈장이 위생·방역우수농장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위생·방역 우수농장 인증요령」에서 정한 7종의 전염병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림부 장관은 전염병 검사 성적서를 수의과학연구소에 통보하여 이를 확인하며, 축산기술연구소장에서는 당해 종돈장의 우수·중·확보 및 분양실적, 종돈분양에 대한 사후관리, 기술 정보

제공실적 그리고 양돈업계간의 신뢰성을 검증토록 한다.

이렇게 확인·검증된 검사 결과는 우수종돈장 인증 심위원회에서 위원회 구성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위원회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우수종돈장 인증 심의위원회는 수의과학연구소장이 위원장이 되고 본회를 비롯하여 축산·수의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 12인 이내로 구성된다.

종돈장의 위생·방역 등급은 검사대상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 농장은 1등급 종돈장, 검사대상 전염병 중 5종 이상이 발생하지 않은 농장은 2등급 종돈장으로 인정된다.

우수종돈장 지정을 받은 농장은 매 6개월마다 재검사를 받아 위생·방역수준을 유지시켜나가야 한다.

축협, 양돈용 배합사료값 평균 7.75% 인상

민간사료업체들이 지난 9월 1일부터 배합사료값을 인상한 가운데 축협중앙회도 9월 5일부로 배합사료가격을 인상하고 양돈용 배합사료값을 평균 7.75% 인상하였다. 지난 4월 중순에 인상된 12.49%를 포함하면 올해 양돈사료 총 인상률은 21.2%에 달한다.

축협 양돈용사료 품목별 인상 내역

(인상시기 : '96년 9월 5일부)

품 목 별	종전가격(원/포대)	인상가격(원/포대)	인 상 륜	'95년 생산 비중	가중 평균 인상률
갓난돼지사료	11,920	12,520	5.03%	2.1%	0.11%
젓먹이사료	6,810	7,330	7.64%	18.1%	1.38%
젓넨돼지사료	6,800	7,300	7.35%	14.4%	1.06%
육성돈사료	5,950	6,480	8.91%	38.2%	3.40%
비육돈전기사료	5,400	5,800	7.41%	0.9%	0.07%
비육돈후기사료	5,350	5,750	7.48%	1.0%	0.08%
임신돈사료	5,350	5,830	8.97%	9.6%	0.86%
포유돈사료	5,850	6,330	8.21%	13.6%	1.12%
번식수돼지사료	5,700	6,150	7.89%	1.1%	0.09%
번식암돼지사료	5,600	6,080	8.57%	1.0%	0.09%
평균인상률(%)			7.75%	100.0%	8.26%

주 : '95년 생산 비중은 '95년에 생산된 총 양돈용사료 비중임.

이번 배합사료 인상에서는 '95년에 생산된 양돈용 사료중 38%를 차지하여 농가에서 소비가 가장 많은 육성돈 사료가 8.9%로 인상되었고, 그 다음으로 많이 소비되는 임신돈 사료가 8.97%로 인상되었다.(표 참조)

농가에서 실제 쓰이고 있는 사료 소비량 가중 평균치로 계산할 경우 양돈사료 평균 인상률은 8.26%에 이른다.

이처럼 '96년 축협 양돈용사료 가중 평균치 인상은 지난 4월 13.15% 인상, 이번에 8.26% 인상으로 '95년말 대비 22.50%의 인상률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축협에서 공식으로 밝힌 축종별 사료 인상률은 양돈용 사료 6.7%, 양계용사료 4.0%, 낙농용사료 8.0%, 비육우용 사료 8.5%, 기타용사료 1.8%로 총 배합사료 평균 인상률은 5.8%이다.

농협거래업체 양돈용사료 6.1% 인상

지난 9월 1일부터 농협과 거래하는 12개 배합사료 업체들이 배합사료 가격을 평균 5.8%, 양돈용사료는 6.1% 인상했다.

사료업체들은 지난 4월에도 이미 배합사료 값을 11.6% 인상한 바 있어 이번 인상으로 인해 축산농가에 사료비로 인한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

으로 보인다.

사료업계는 최근들어 원화의 환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국제 사료 곡물값도 오름세가 이어져 국내 배합사료값의 추가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농협과 거래하는 12개 배합사료업체들의 축종별 평균 인상률은 돼지 6.1%, 소 6.7%, 닭 6.7% 기타 4.6%이다.

12개 배합사료업체의 양돈용 배합사료 인상률과 전 품목 배합사료 인상률은 다음과 같다. () 안은 전품목 배합사료 인상률.

대한제당 5.4%(6.3%), 퓨리나 6.1%(6.3%), 삼양사 6.2%(6.3%), 우성사료 6.4%(4.1%), 제일제당 6.0%(6.5%), 미원 6.2%(4.8%), 신동방 6.1%(6.0%), 두산종합식품 5.9%(6.4%), 제일사료 6.4%(5.3%), 대주산업 6.3%(6.4%), 한일사료 5.7%(6.4%), 제일곡산 6.2%(5.3%)

TGE 등 자돈의 바이러스성 설사, 연중 발생

지난해 부터 TGE(전염성 위장염), PED(유행성 설사병),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등 바이러스성 설사가 연중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비해 철저한 예방접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8월 9일 수의과학연구소의 가축 질병 중앙 예찰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TGE, PED,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등 자돈의 바이러스성 설사가 동절기에 주로 발생한다는 통념을 벗어나 5, 6, 7월 경에도 지속적인 발생을 보이고 있어 연중 발생하는 자돈의 바이러스성 설사에 대비한 철저한 예방접종을 해야한다.

한편 '96년도 하반기 예측 질병으로는 돼지 콜레라, 전염성 위장염, 유행성 설사, 호흡기 생식기 증후군, 홍막폐렴, 대장균증, 돈단독 등을 꼽고 이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요망했다.

수입육류 유해 잔류물질검사 강화

농림부 산하 동물검역소는 지난 9월 4일부터 수입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칠면조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등 수입식육에 대한 농약 등 유해잔류물질 검사항목을 종래의 55종에서 1백 11종으로 늘리는 등 안전성검사를 크게 강화했다.

수입식육의 유해잔류물질 검사항목은 ▲ 농약이 종전의 17종에서 69종으로 ▲ 항생물질이 18종에서 20종으로 ▲ 합성항균제는 20종으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농약의 경우, 아세페이트 등 52종이 새로운 검사항목으로 추가되며 항생물질은 겐타마이신과 아목시실린, 합성항균제는 이소메타미디움과 플루벤다졸이 각각 추가된다.

동물검역소는 수입육류의 잔류물질 검사항목으로 추가된 성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검사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 음식물쓰레기 이용한 사료공장 건설 추진

정부는 지난 9월 5일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7~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하여 사료화할 수 있는 사료공장 건설

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음식물쓰레기(잔반)를 이용한 사료공장이 현실화 될 경우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및 환경보호, 배합사료 원료의 공급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부는 우선 음식물쓰레기 대량 배출지역 가운데 체계적인 수거가 가능한 지역에 시범공장을 짓고 단계적으로 공장건설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림부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 매립키위해 투자하고 있는 비용이면 '음식물쓰레기사료화 공장'을 무리없이 지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이 가동되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제품을 국내 사료업체에 원료로 공급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공장 건설구상이 구체화되려면 우선 일반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철저히 분리수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강산업, 독산동 축산물 도매시장 법인 지정 받아

-9월 4일부터 경매업무 재개

유창식품의 부도로 축산물 도매시장 기능이 중단되었던 독산동 축산물 도매시장이 태강산업(주)에 의해 도매시장 기능이 재개되었다.

태강산업(주)(대표: 함상원)은 지난 9월 4일 서울시로부터 독산동 축산부류 도매시장 법인지정을 받고 업무를 개시하였다.

이에따라 태강산업(주)은 독산동에 서울지사를 설치하고 지난 4월 20일부터 중단되었던 돼지, 소 지육의 경매를 재개하였으며, 조만간 수입육의 경매까지 취급할 계획으로 있어 축산물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했다.

독산동 축산물 도매시장의 기능 정상화로 돼지, 소 등의 도축과 경매는 축산물의 원활한 공급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즉석 탕수육 체인점 인기로 후지 소비 증가

최근 즉석 탕수육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주 원료인 돼지 후지가 가격이 상승하는 등 돼지고기 소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2년전부터 소비분이 일기 시작한 즉석 탕수육시장에 현재 40여개의 즉석 탕수육 유통업체가 체인점 모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즉석 탕수육 시장이 치킨점과 피자 체인점처럼 생활속의 식품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즉석 탕수육 체인점은 아파트 밀집지역과, 유동 인구가 많은 상가지역에서 급속하게 생겨나고 있는데, 주로 어린이 간식용과 어른의 술 안주로 많이 팔리고 있어 소비대상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즉석 탕수육 가격은 한 접시에 6,000~7,000원 선으로 가격이 저렴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처럼 즉석 탕수육의 인기로 주 재료인 후지가 가격이 지난해 kg당 평균 2천1백원대 이던것이 최근에는 3천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돼지고기를 이용한 가공 식품의 인기로 돼지고기 가격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에는 "육질"이 중요한 개량 항목

오는 2000년대에는 돼지고기 육질이 중요한 종돈개량 항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PIC사의 엘던 윌슨 박사는 일본에서 열린 21세기를 향한 유전개량방향에 관한 세미나에서 "2000년대의 종돈개량 방향은 현재의 '정육률' 위주에서 '육질' 위주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 수십년동안 세계의 종돈개량 방향은 정육률과 사료효율, 발육속도 등 산육성에 중점이 두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소비자들의 기호변화에 따라 육질에 중점을 두고 종돈개량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 예로, PIC사의 지난 1985년~1990년대의 종돈 유전개량 포인트 비중은 정육률 48%, 사료요구율 37%, 발육속도 15%였고, 1990년~1995년대의 비중도 정육률 35%, 사료요구율 30%, 산자수 19%, 발육속도 16% 등 산육성에 중점을 두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PIC사의 1995년~2000년대의 유전개량 포인트 비중은 사료요구율 30%, 산자수 25%, 발육속도 20%, 육질 15%, 정육률 10%로 산육성 비중이 낮아지는 대신, 사료효율과 육질 등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PRRS 콘트롤에는 올인-올아웃이 필수

PRRS를 콘트롤하기 위해서는 PRRS에 감염된 후보모돈의 도입을 중지하고, 올인-올아웃을 철저히 시행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미국의 양돈콘설턴트인 알렌 해퍼박사는 "PRRS에 대처하는 사양관리"란 주제발표를 통해 "PRRS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3주령에서 18주령의 돼지에 약독 생백신을 접종하는 외에 감염돈의 도입을 중지하고, 올인-올아웃을 철저히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퍼박사는 이밖에도 PRRS를 효과적으로 콘트롤 하기 위하여는 ▲ 양자보내기를 중지하든가 양자보내기가 필요할 경우 생후 24시간 이내에 실시 ▲ 분만실간의 모돈·자돈의 이동은 절대금지 ▲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중증 자돈은 즉각 처리 ▲ 유·조산 자돈을 사료에 섞이지 않도록 한다 ▲ 포유자돈은 올인-올아웃을 철저히 시행하고, 포유자돈사로의 이동간격은 세척, 소독을 위해 약 2~3일간 놓아둔다 ▲ 이유자돈사로의 이동은 조기이유로 일령이 가장 빠른 것과 성격이 가장 좋은 것 순서대로 입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